

보도시점 2026.10.15.(목) 11:00
< 10.16.(금) 조간 >

배포

2026. 10. 15.(목)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 -
- 중견기업 주도로 산·학·연을 망라, 초격차형 10대 시스템 기술 확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5일(목)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10대 유망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행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날개’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로 명명되었다.

산업부는 향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 까지 과제당 최대 5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제는 크게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기술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토론과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굴과제는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7년 선행연구와 '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9년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 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안응수 (044-203-4370)
		담당자	사무관	이영현 (044-203-4375)

□ **행사 개요**

- (배경)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신규사업 기획 착수
- (일시/장소) '26.10.15(목) 14:00~15:20 / 서울 LW컨벤션 W홀
- (참석)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정부위원장), 공학한림원 원장(민간위원장),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원탁회의 위원(21) 등 약 30명 내외

□ **주요 내용**

-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
 - 사업 목표 및 기획 추진방향 논의·설정, 10대 전략분야 도출 및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
- 원탁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

< 세부 진행계획 >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민간위원장 모두발언	민간위원장
14:05~14:10 (5')	■ 정부위원장 모두발언	산업정책실장
14:10~14:20 (10')	■ 위촉장 수여(위원장 대표) 및 기념촬영	실장 및 위원
14:20~14:35 (15')	■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KIAT 본부장
14:35~15:15 (40')	■ 참석자 토론	좌장
15:15~15:20 (5')	■ 정부위원장 마무리발언	산업정책실장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까지만 공개, 이후 비공개